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

▲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. 사진=shutterstock

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20%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지난 21일 '연합뉴스' 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1.5% 증가했다고 밝혔다.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. 기존 최대치는 지난해 하반기로 542억 달러였다.

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. 특히 5월(38.5%)과 6월(30.9%)에는 증가율이 30%를 넘었다.

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7.1% 증가한 27억1천만 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.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 확대에 전체 의약품 수출은 19억8천만 달러로 224.9% 급증했다. 또 자동차부품(26.1%), 반도체(45.5%), 반도체 제조용 장비(21.5%) 등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.

국가별로는 미국과 독일에 대한 수출이 역대 최대였다. 대미 수출은 69억8천만 달러로 15.0% 증가했다. 독일에 대한 수출은 165.0% 늘어난 18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.

상반기 온라인 수출은 5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01% 늘었다. 온라인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수출액(7억3천만 달러)의 77%를 이미 달성했다.

온라인 수출 품목은 주로 화장품(38.7%), 의류(16.7%) 등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였다. 수출 대상국도 일본(52.4%), 중국(18.1%), 미국(17.7%) 등 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국가에 집중됐다.

자영업자 은행 대출 급증

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직전 같은 기간보다 84%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얘기다.

지난 21일 '서울신문' 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,022조 1,000억 원으로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 1,000억 원(17.6%) 늘었다고 집계했다.

이 중 대기업 대출은 20조 8,000억 원(13.7%),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,000억 원(18.5%) 증가했다.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(자영업자) 대출은 66조 9,000억 원(19.8%)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.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같은 기간(2018년 6월 말~2019년 12월 말 36조 4,000억 원)과 비교하면 83.8% 많은 것이다.

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 8,000억 원에서 2019년 말 338조 5,000억 원으로 24조 7,000억 원 증가했다. 이어 지난해 말 386조 원으로 47조 원 급증했고, 올 들어 5월 말 기준 402조 2,000억 원으로 400조원을 처음 넘었다.

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야 했다. 그나마 은행 대출 등으로 연명했지만 이제 대출 한도가 차서 대출을 더 받기도 쉽지 않다. 한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들의 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

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는 '카카오'

▲ 그래픽=인크루트

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은 카카오였다.

지난 20일 '경향신문' 에 따르면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날 전국 대학생 1,079명을 대상으로 2021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.

조사결과 카카오가 응답자의 12.7%를 차지해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. 높은 사업가치와 유망한 성장가능성 (21.2%)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고 본인의 성장, 개발 가능성(16.1%)을 들었다.

2위는 10.7%의 득표율을 기록한 삼성전자다.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(55.6%)라고 과반 이상이 답했다.

설문 결과 CJ그룹 계열사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. CJ ENM(7.0%)의 경우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고, CJ제일제당(5.9%)은 9위에서 4위로 단숨에 5계단 순위 상승했다. CJ ENM 또는 CJ제일제당을 뽑은 이유는 동종업계와 지역사회, 해외에서 선도하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

반면 네이버(5.1%)는 2019년 1위에서 2020년 3위, 올해는 5위로 물러났다. 현대자동차(4.1%)와 아모레퍼시픽(3.4%)도 각각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한 7위와 8위를 기록했다. 2019년 4위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2020년 10위권에 오르지 못했으나 올해 6위(4.6%)에 올랐고 LG화학(3.2%)과 BGF리테일(2.4%)은 각각 9위와 10위로 진입했다.

인크루트는 2004년부터 18년간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. 올해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 150개사(그룹사 제외)를 대상으로 진행했다.

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
"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."
천관우 변호사 그룹
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
이민법, 상법, 부동산법 전문
프로디 관련 상담
고국에 계신 부모님/배우자 영주권 신청
이민법
영주권 (취업 1,2,3순위 이민 – NIW, 국제적기업간부급, 간호사 포함,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, 종교이민)
각종 비이민비자 (H1B, R1, E2, E1, L1, F1, O, P, TN/TD비자 등), DACA, 601A Waiver, 245i
추방유예상담, J1 Waiver, 영주권 인터뷰, 재입국허가서, 영주권 재발급, 시민권 신청
취업 영주권 상담 / DACA 연장접수 /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
부동산법
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/강제퇴거명령(이빅션)/Title에 대한 분쟁–Quiet the title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상법
계약분쟁 소송/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

천관우 변호사
서울고•연세대•법학박사
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
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
josephlaw1224@gmail.com
☎ 상담문의
LA Office 213-232-1655
3600 Wilshire Blvd., #1227, Los Angeles, CA 90010
OC Office 714-522-5220
6281 Beach Blvd., Suite 300, Buena Park, CA 90621